

《청소년 부의 미래》 출간, 앨빈 토플러 박사 내한 강연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 관심 가져야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가 내한했다. 지난해 8월 출간된 저서 《부의 미래》(청림출판)가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면서 그간의 명성을 재확인한 토플러 박사는 《청소년 부의 미래》 출간에 맞춰 6박7일 일정으로 5월 29일 한국을 찾았다. 토플러 박사는 공동저자인 아내 하이디 여사와 함께 일주일간의 체류기간 동안 약 9개가 넘는 강연과 사인회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6월 2일, 한 시간 반 동안 광화문 교보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독자 강연회에서 토플러 박사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철학을 독자들에게 나눴다. 그는 자신의 책 《부의 미래》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려는 시도”라고 집필 의도를 밝히면서 “부와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새롭게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전했다.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프로슈머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숨겨진 체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가 바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과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틀, 두 가지를 함께 부각시킨 책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미래에 지식기반사회가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지식기반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한국은 리더가 됐다”면서 신기술 개발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한국이 타국가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은 서로 열려있다. 이는 바로 관료주의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식기반사회 이후 권력의 이동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테러와 신경과학, 뇌 과학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인간에 대한 정의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토플러 박사는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민족주의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민족국기는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해 국수주의적 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나는 종 보존주의자다. 앞으로 인류가 계속 살아남길 바란다. 미래에 지켜야 할 가치라면 바로 인간”이라는 토플러 박사는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현재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본**

